

아카마 신궁

아카마 신궁은 불과 8 세의 나이로 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잃은 안토쿠 천황(1178~1185)을 모신 신사입니다. 가라토 시장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면 있으며, 인상적인 붉은 문은 시모노세키의 랜드마크입니다. 현재의 샤덴(신사의 건물)은 제 2 차 세계대전(1939~1945) 이후에 지어졌지만, 아카마 신궁의 역사는 수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불교와 신도(神道) 모두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859 년에 승려 교교가 이 땅에 하치만 신을 모시는 사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단노우라 전투(1185)에서 어린 안토쿠 천황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서 수 세기가 지난 후에야 안토쿠 천황이 잠든 곳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불교 신앙에서는 승하한 천황의 영혼이 보복을 바라며 원혼이 되어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달래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1191 년, 안토쿠가 익사한 만을 내려다보고 있는 절에 공양당이 세워졌고 안토쿠의 혼을 달래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아미다지 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은 그 6 년 전 안토쿠와 함께 목숨을 잃은 수천 명의 무사를 위해 지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토쿠 천황 모친의 유모였다고 여겨지는 여승 메아(생물년 미상)가 안토쿠 천황의 진혼 의식을 도왔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안토쿠 천황과 함께 바다에 뛰어든 니이노아마(안토쿠 천황의 조모)의 말에서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단노우라에서 그녀의 일족의 멸망이 분명해졌을 때 니이노아마는 ‘남자들의 영혼을 위해 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여자들을 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 세기 후, 메이지 시대(1868~1912)에 이르러 신도(神道)와 불교는 명확히 구별되게 되었고 아미다지 절은 신사로 분류되어 아카마 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940 년 아카마 궁은 최고위 신사로 아카마 신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 년 7 월, 미국의 폭격에 의해 신사는 소실되었습니다. 아카마 신궁이 재건된 것은 1965 년입니다.

아카마 신궁의 볼거리

먼저 새빨간 이층 지붕이 달린 아치형 수천문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천문은 일본 등록 유형문화재입니다. 그 밖에도 외배전(外拜殿)과 내배전(內拜殿)에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배전에는 얇은 연못이 있는데, 이는 전설의 해저 용궁 ‘용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니이노아마는 바다에 뛰어든 때 어린 안토쿠 천황을 안심시키기 위해 우리는 전설 속 궁전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본전(本殿)의 서쪽에는 안토쿠 천황의 묘인 아미다지 룡이 있습니다.

구전되는 괴담 ‘귀 없는 호이치’

아카마 신궁은 헤이케 무사들의 망령에게 귀를 빼앗겼다는 비파 연주자 호이치와 관련된 괴담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라프카디오 현(1850~1904)의 『괴담』(1904)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보물전의 뒤쪽에는 호후 출신의 작가 오시다 마사오(1920~2008)의 작품인 표정이 풍부한 호이치의 조각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안토쿠 천황을 기리는 ‘센테이사이’ 축제

매년 5 월 2 일에서 4 일까지 안토쿠 천황을 모시는 제례가 열립니다. 시모노세키 해협 축제의 일부로, 유녀로 분장한 여성들이 아이들과 경호원 역으로 분장한 남성들을 이끌고 행렬을 만듭니다. 이 행렬은 전투에서 살아남은 12 세기의 유녀들을 기리는 것으로 그녀들은 매년 안토쿠 천황의 능묘를 찾아 꽃을 바쳤다고 합니다.